

무더위야 반갑다 빙수업계 '빙그레'



때 이른 더위에 판매량 급증

"보기좋은 빙수가 맛도 좋다"

식음료업계 신메뉴 잇단 출시



빙수업계가 올해 때 이른 더위에 함박웃음이다. 한때 여름 시즌 메뉴였던 빙수가 국민디저트로 시장에 안착하며 빙수 판매량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시장은 빙수 업계의 급격한 성장으로 8000억원대 시장을 달성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성장세를 이어받아 1조원이 넘는 시장이 예상된다. 순수한 빙수시장은 최소 1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빙수전문 브랜드는 물론 빙수를 취급하는 커피전문점들까지 다양한 메뉴를 앞다퉀 내놓고 있다.

눈꽃빙수로 새로운 빙수열풍을 불러왔던 코리안 디저트카페 설빙은 올 1~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빙수의 계절감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여름을 겨냥한 시즌메뉴가 아닌 사계절 메뉴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팔이나 과일을 넣어 치즈케이크나 티라미수 등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토핑을 사용한 빙수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빙수가 사계절 디저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설빙 측에 따르면 5월24~27일 총 매출은 전주(17~20일)보다 40.7%나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2% 늘어난다.

설빙 관계자는 "과거 얼음에 치중했던 단순한 빙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토핑과 맛을 선보이다 보니 이제 빙수도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선택해서 즐기는 사계절 디저트로 변화했다"며 "그 결과 겨울철 빙수 매출도 매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수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식음료업계도 적극적으로 소비자 입맛잡기에 나섰다. 얼음의 빙질부터 토핑의 종류, 눈길을 사로잡는 외형까지 저마다 각양각색의 빙수를 내세워 차별화에 주력하는 것. 올해는 시장선점을 의식한 듯 예년보다 빠른 4월부터 신메뉴를 출시하는 등 시장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추세다.

설빙은 과육이 단단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인 고급형 애플과를 사용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또 2014년 망고를 사용한 '망고유자설빙'과 '망고치즈설빙'은 당시 1차 계획수량이 7일 만에 전량 소진되며 예상을 뛰어넘었다.

커피전문점들도 빙수메뉴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카페베네는 눈꽃처럼 부드러운 망고얼음 위에 생강고를 통째로 얹은 '코니 망고눈꽃빙수'와 생강고에 젤라또, 치즈케이크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망고치즈케이크빙수' 등 8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탐앤탕스의 경우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다는 점을 강조한 '숨사탕 빙수' 4종을 출시했다. 눈꽃빙삭기로 유유 얼음을 부드럽게 갈아낸 것이 특징이다. 숨사탕 얼음을 주축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입맛을 두루 고려한 망고유자, 쿠키앤크림, 블루베리요거, 흑모짜뿔 등을 토핑으로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뜨거운 경쟁으로 소비자의 입맛과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독특한 빙수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중심으로 한 SNS의 파급효과가 높아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통신사의 모델들이 모바일 홈쇼핑 서비스 'T쇼핑' 사용법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온라인쇼핑 43%... 모바일쇼핑 폭풍성장

4월 거래액 1조8610억, 82% 늘어... 여행 및 예약서비스 1위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쇼핑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43.0%를 차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15년 4월 소매매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매매액은 29조88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2.7% 늘어난 4조331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매매매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의 '급성장'이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조8610억원으로 작년 대비 81.6% 증가했다. 전달과 견주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과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각각 0.6%, 4.6%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43.0%를 차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치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모바일쇼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은 주로 모바일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 지난해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은 상품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2970억원)로 전체 거래액의 16.0%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2630억원), 생활·자동차용품(1960억원), 음식료품(1880억원), 화장품(147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모바일쇼핑 중 음식료품의 급증도

돋보인다. 지난해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 음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5.0%나 급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122.8%), 화장품(119.4%), 사무·문구(115.7%) 거래액도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소매매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서적 및 문구(-4.7%) 등이 줄었으나, 가전제품·컴퓨터 및 통신기기(14.4%), 화장품(11.7%) 등은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서적 및 문구(-3.9%)는 감소했으나, 음식료품(36.9%)·화장품(36.3%) 등은 증가했다.

또 소매매매에서 온라인쇼핑 비중이 높은 상품은 서적 및 문구(29.0%), 가구(25.6%), 가전제품·컴퓨터 및 통신기기(25.1%)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비중이 높아진 상품은 화장품으로 3.6%포인트 늘었고, 가전제품·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0.9%포인트 줄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골프웨어시장엔 불황이 없다 올 매출 7% 늘어난 3조원 예상

경기침체에도 올해 골프웨어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7% 증가하면서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골프웨어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골프웨어시장 총 매출액은 3조원으로 작년의 2조8000억원보다 7.14% 늘어나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골프가 고가의 고급스포츠로 분류되던 과거와 달리 근래 실내외에서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면서 20~30대 젊은 연령층도

쉽게 접근할 있는 레저활동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골프웨어 시장도 신규 브랜드 출시, 그리고 K2와 밀레 등 아웃도어브랜드의 진출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브랜드인 닥스 골프·나이키 골프 외에도 해리토리 골프·데상트 골프·와이드앵글·밀레 등 새 골프 웨어가 등장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신세계백화점도 특색 있는 감성이 돋보이는 일본 골프 웨어 브랜드 '마크엔로

나'를 단독 수입, 판매하면서 경쟁에 가세했다.

젊은 층 수요에 따라 골프웨어 디자인이나 컬러, 패턴 등도 젊어지고 있다. 휠라 골프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또'의 주 원료인 과일과 천연재료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원하고 달콤한 느낌을 살린 '젤라또 티셔츠'를 올해 봄·여름철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제이 린 드버그도 단조로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갖춘 피케 셔츠와 팬츠 등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 /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송정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 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070㎡ 매 6억5천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검색엔진에 **고창에 집짓기** 검색해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영이 바위 펜화



50만년의 펜션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교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 층별 | 계약면적(㎡/평) | 업종 | 비고 |
|-----|------------|------------------|----|
| 지하층 | 1,337(404) | 주차장 | |
| 1층 | 1,000(302) |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 |
| 2층 | 878(265) | 은행, 병원, 커피숍 | |
| 3층 | 1,027(310) | 병원, 업무시설 | |
| 4층 | 1,027(310) | 병원, 업무시설 | |
| 5층 | 1,027(310) | 병원, 업무시설 | |
| 6층 | 1,027(310) | 병원, 업무시설 | |
| 7층 | 1,027(310) | 병원, 업무시설 | |
| 8층 | 1,027(310) | 병원, 업무시설 | |

*임대료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